

나주, 천년의 역사, 그리고 가능성 Naju, the First Millennium, and Potentials

이효원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by Lee Hyo-Won

나주의 지역적 배경

나주는 노령산맥의 말단부이며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에서 보면 전남의 한 가운데에 있다. 금성산 일대는 산지이며 주위에 남산을 비롯한 나지막한 구릉들이 존재한다. 이 일대를 제외하고 동쪽과 남쪽은 대체로 평탄하다. 금성산에서 흘러내린 나주천이 나주를 관통하여 영산강과 합류하며, 도시의 남동부를 타고 흘러간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나주지방을 청동기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서남해 지방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하였다. 마한시대에는 현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마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고려시대에는 전국 12목의 하나인 나주목, 이어 조선시대에까지도 행정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호수가 22,330호로서 조선 말기 20개의 목중에서 5번째로 큰 곳이었다. 나주목은 전결수가 28,000결 이상으로서 전국 최고였다고 정약용의 경세유표가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는 오래 전부터 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곳으로 읍성이 있었으며, 읍성의 윤곽은 현재에도 남아있다.

1895년 근대 행정개편이후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영산포읍, 나주군과 통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주는 영산포와 길게 연결된 선형의 시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의 구조는 여전히 읍성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제 강점 하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가치의 교묘한 파괴와 함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의 소외는 과거와는 다르게 금세기의 나주를 전남에서도 5, 6번째의 도시로 전락하게 하였다.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만나고,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느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나주의 과거와 현재

지역의 특색을 건축이라는 문화영역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모습이 부정적이라는 공통의 시각에

서 출발한다. 특히 이 무형의 지역적인 특성을 유형화된 상태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경제활동의 진작, 외부 인구의 흡인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나라와 구별지으려는 것에서 시작하며 알맞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뒤를 받친다.

그런데 이 지역성을 시간의 누적이 공간속에 실체화하는 과정과 그 흔적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에서 찾으려다 보니 그 지역의 과거와 관련짓게 되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보존과 재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이런 이유로 각 도시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전주와 익산처럼 과거의 전통문화가 남아있는 도시는 전통적인 형태에 집착한다. 남원처럼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현실화되거나 흥길동을 두고 다른 지역들이 연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그 고장의 특산품이나 자연경관을 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건축적 형태의 근원은 전통에서 찾고 있다.

나주는 전통의, 즉 과거의 흔적이 축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읍성의 윤곽이 파괴로 대변되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도 아쉬우나마 견재하고, 그 읍성영역의 안에는 문화재라 불리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보물394호인 나주향교 대성전을 비롯하여, 객사인 금성관, 나주향교, 정수루, 나주목사내아, 사마교비 등이 있으며, 과거 읍성의 남문이 복원되어 있다.

이러한 실체적인 근거는 나주의 공공건물이 취하고 있는 유형에 대하여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나주와 영산포 사이의 신도심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시청사와 문예회관, 도서관의 형태는 80년대 이후 양식화되다시피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향토예술회관은 좀 더 과거의 형태이면서도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건물들이 취한 형태가 전국 통일의, 거의 표준화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위 뼈대가 있으니 덜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의 건물, 특히 관이 주도하는 건물이 아닌 일반의 상업건축과 주거건축으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읍성공간의 틀에서 파생된 나주의 가로망은 좁은 도로폭으로 말미암아 3, 4층이 넘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 건물들에서 나주만의 특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읍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가로망을 개선할 경제적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읍성의 성벽이 일부 남아 있음에도 그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공공의 개발행정에 의해서도 훌륭한 역사문화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타도시에 비해 도시화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겪게 되어 역사문화환경이 덜 파손되고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현재의 긍정적 측면이 보존과 활용의 대책이 없이



나주 고지도

무분별하게 방임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나주의 위상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보이지 않고, 나주와 상관없는 아 침저녁의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체증에서나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광주의 30분 거리라는 조건은 도시의 역량을 감소시키고, 퇴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규모의 경제나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예측화의 문제 등은 나주에 지어진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들에서 서울의, 혹은 광주의 아류일 뿐이며,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저급한 평균만을 유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영산포의 거리는 몇 해전인가 60년대의 영화세트에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는 객사, 정수루, 목사내아 등이 일점 거리를 두고 원형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신축건물에 의해 포위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장점마저도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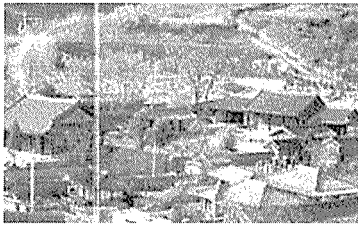
현재의 지역성, 혹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근대건축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 사조의 입장이 아닌 정체성 확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상황은 그저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성의 획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떠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언젠가는 얻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성이 우리를 채근한다.

나주라는 도시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다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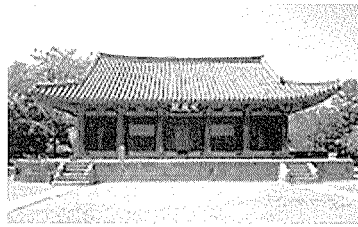
지역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현재에 진행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나주는 유서 깊고, 전통적인 면이 살아있다고 강변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원형이되, 현재에서의 의미와 결부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주의 현재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특히 나주와 같은 도시들이 범하기 쉬운 과거에의 집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양의 가사문학관처럼 전통건축을 콘크리트로 번안하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전통이 유형론에 빠지게 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속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계승이겠으나 밖에서 본다면 아마 지역주의가 아닌 풍토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의 모습일 것이며, 본질이나 정신이 아닌 외면된 흥밋거리의 혹은 색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이다.

공간과 형태, 장소라고 하는 건축의 본질 측면에서 나주는 앞에서 지적된 한계속에서 음식의 흔적과 과거의 도시구조, 별로 개발되지 않은 낮은 건물은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이 근대화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비해 나주는 별로 저질러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여 앞으로 발전적 모습을 만들어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름 없이 그저 구 군청(현 나주시 2청사) 앞 도로라 불리는 2차선 도로와 남문 앞의 중앙로는 나주의 대표적인 도로이다. 전자는 과거의 중심도로였고, 후자는 근래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다. 구 군청앞 도로가 좁고 불편해 보일 망정 다른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중앙로보다는 나주만의 개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골목 한 칸의 작은 전각사이에 돌담이 지나가고 멀리 보이는 산 위에 현대의 건물이 공존하는,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은 나주가 앞으로 나아가갈 긍정적인 방향의 하나이다. 물론 현재의 건물이 건축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건립될 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과거 근대건축과 같이 절대적인 전범(典範)이 없이, 각자의 차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축적 양상이다. 포스트모던도 해체주의도 모두 이런 맥락으로만 치부되는 요즘의 상황은 우리에게 긴 세월동안 외부의 것을 받아만 왔던 한계를 극복할 처음의 기회로 보여진다.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양식화된 형식이 아닌, 공간과 장소에서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통감각에 조응하는 건축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현재의 나주에서 그 단초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나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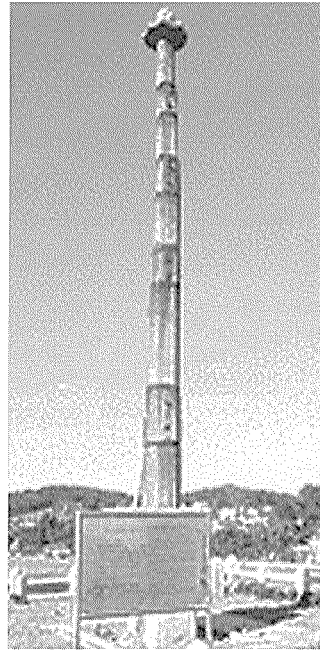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나주 금성관(객사)



정수루



동문밖 석당간



나주시 전경



나씨 삼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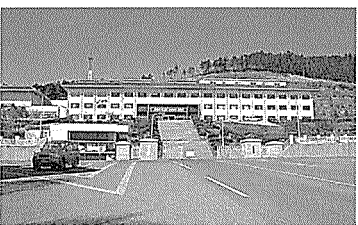
중앙로와 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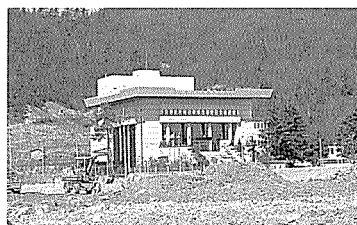
나주목사내아



영산강과 영산포



나주시청



나주시 문예회관



도서관



향토예술회관



담양 기사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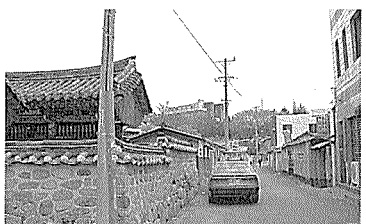
정수루 옆 가로



군청앞 도로



구 군청앞 도로



중앙로 옆 골목